‘때리고 목 조르고’…어린이집 학대 의혹

어린이집서 장애아동 학대정황 추가로 파악
CCTV 영상에서 아동학대 상황 다수 포착돼
손가락으로 13초 동안 머리 딱밤 12대 때려
팔로 목 조르기도…교사 등 말리는 사람 없어

뇌병변장애 2급을 앓는 장애아동을 보육교사가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경남 사천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 보육교사 1명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다른 보육교사 및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애아동들을 학대해 온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이다.

15일 뉴시스가 입수한 경남 사천 K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최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를 제외한 다른 보육교사 및 관계자 등이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담겼다.

지난 9월15일 기록된 CCTV 영상에는 다른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의자에 앉아있는 장애아동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찍혔다.

영상에 따르면 B씨는 13초 동안 딱밤으로 장애아동의 머리를 12대 때렸고, 피해아동은 고통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숙이기만 할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보육교사 A씨가 지켜보기만 하면서 태연하게 물을 마시는 장면도 함께 찍혔다.

이 같은 행위 전 B씨는 자신의 손가락에 입김을 분 뒤 허공에 딱밤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A씨와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이후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딱밤을 때리기 시작했다.

같은 피해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딱밤을 때리는 B씨의 모습도 확인됐다. B씨는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자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머리를 때렸다. 피해아동의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세기였다.

B씨는 또 누워있는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양팔을 들어 자기 옆에 있는 장난감집 안을 들춰보자 손으로 아동의 양 팔을 세게 내리치기도 했다. 이에 피해아동은 깜짝 놀랐다는 듯이 입을 벌린 채 옆에 앉아있는 B씨를 올려다 봤고, B씨는 그런 피해아동을 한동안 째려봤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아동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B씨와 함께 작업을 하던 사회복무요원은 갑자기 옆에 서있던 장애아동의 목을 자신의 팔로 조르기 시작했고, 발꿈치가 들릴 정도로 목이 졸린 장애아동은 이내 괴롭다는 듯이 팔을 휘저었다. 이를 말리는 보육교사는 없었다.

익명의 민원을 통해 다수의 아동학대 정황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천시청은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B씨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징계 등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천시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단을 내린 것은 맞지만 결과는 당사자에게만 통보하게 돼있다”며 “(이번 사건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정직 등의 행정처분 대신 상담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 후속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교사들이 아직도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계속 일을 한다고 해도 제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B씨 등 교사들은 아직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희 기자

감사원, ‘옵티머스 검사 적정했나’ 금감원 감사 나선다

펀드 판매·이혁진 진정 각하·조력 행위여부 등

감사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참여연대는 15일 "지난 10월28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출한 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감원의 검사, 관리·감독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올해 6월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총 3가지로 ▲2019말~2020년초 옵티머스 펀드 문제를 인식했는데도 펀드가 계속 판매된 경위 ▲금감원이 2018년 4월 이혁진의 옵티머스 펀드에 관한 진정 민원건 각하 처분한 경위 ▲2017년 12월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결정 관련 금감원이 옵티머스 측에 조력한 행위 여부이다.

이외에 옵티머스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펀드 판매를 제안하면서 펀드 설계 전반을 금감원에 검사·감독을 받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 NH투자가 금감원에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다른 사안과 중복된다며 NH투자증권 부분은 종결했다.

감사원은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검사 유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2017년부터 환매중단을 통보한 올해 6월17일까지 옵티머스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의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한 다른 청구내용과 중복돼 종결한다"고 전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0월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운영 실태를 감사하면서 옵티머스·라임 감독 관련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내 군복무가 어때서” 술 마시다 둔기로 이웃 때린 50대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은 이웃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15일 이웃을 벽돌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4일 오후 9시께 담양군 창평면의 식당 앞에서 이웃 B(55)씨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놓여있던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식당에서 B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나의 군 복무 경험을 깎아내리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불 낸 70대, 출소 1년 만에 또 방화

6년 전 서울 지하철 3호선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렀던 70대가 또다시 방화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심야시간대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조모(7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지하1층~지상3층) 내부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다.

불은 조씨가 건물 침입할 때 울린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조씨는 해당 건물 관계자와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37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도곡역행 전동차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누수 현상과 관련, 광주시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사법부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이후 조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으며, 경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부부 싸움 뒤 홧김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미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돼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말다툼을 한 아내가 집을 나가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개조 캠핑차 내 숙박 중 50대 일행 가스 중독…1명 사망

개조한 대형 버스에서 숙박을 하던 50대 남성들이 난방용 가스에 중독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4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3분께 고흥군 금산면 한 체육시설 인근 도로에 서 있던 45인승 버스에서 잠든 A(55)씨 등 4명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가 숨지고 B(55)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구토·오한 등 가벼운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A씨 일행은 캠핑용 차량으로 개조한 45인승 버스를 타고 여행 중이었으며, 이른바 ‘차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